

놓치기 쉬운 우리 가족 전기안전수칙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때!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엄마로서 자책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여서 가보면, 코드가 꽂혀있는 충전기 잭을 만지고 있다던가, 아직 잔열감이 남아 있는 고데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안 돼!" 외치기 일쑤.

당연히 아이는 엄마의 큰 소리에 더 깜짝 놀라서 울먹거리기 마련이구요. 생각해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의 부주의로 생긴 일인 만큼, 아이에게 만지면 안 된다고 큰 소리내기 전에 미리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생활 속에서 방심하기 쉬운, 그렇지만 아이가 있다면 꼭 신경 써야 할 우리 가족 전기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사용 후엔 전기코드 뽑아놓기



늘 코드를 꽂아두고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등 가전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후에 바로 코드를 뽑아놔야 하고, 특히 고데기, 글루건, 커피포트처럼 열감이 있는 제품들은 더욱 신경 써서 사용 후엔 아이 손에 안 닿는 곳에 넣어 두기.

“

둘째, 전선 피복 벗겨짐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주로 자주 사용하거나, 꺾이는 부분의 피복이 잘 벗겨지지만, 간혹 어딘가 무거운 물건에 눌렸거나, 뜨거운 것 옆에 있어 녹아버리면 중간 부분의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살짝 벗겨졌을 땐 절연 테이프로 보수, 그렇지 않을 땐 무조건 전선 교체**를 추천.

“

셋째, 장시간 배터리 충전하지 않기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 배터리, 청소기 등등, 우리 일상 속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 계실 텐데요. 충전이 다 끝나도 그냥 계속 꽂아두다가,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충전을 끄는 경우가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나 **충전이 끝나면 바로바로 충전잭 연결을 제거하는 게 기본**. 잊을 만하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는 각종 전자장비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를 우리가 예방할 방법은 기본 전기안전 수칙 지키는 것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켜보자구요!

넷째, 에어컨 실외기 관리하기



열이 많은 아들과 남편 덕분에 이미 선풍기를 틀기 시작했고, 이제 숲을 에어컨 가동을 준비 중인 요즘.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청소는 신경 쓰면서도 실외기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인지 청소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게 함정. but,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바람이 통할만한 여유 공간과 주기적인 이물질 청소는 필수!**

“

다섯째, 장기간 집을 비울 시 전기코드 빼놓기 혹은 일괄소등 이용하기



명절이나 휴가 기간,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땐 꼭! 집 안의 전기코드는 다 뽑고 외출하기. '계속 사용하던 건데, 2~3일 집 비운다고 무슨 일 있겠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콘센트에 손이나 쇠붙이 넣지 않기, 물 등은 손으로 전기제품 만지지 않기, 코드 뽑을 때, 전선 부분 잡아당기지 않기 등 생활 속 기본적인 전기안전수칙들은 평소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엄마 아빠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것이 백 번의 설명 보다 더 좋은 방법이겠죠?!

“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집에 있는 전기가 통하는 물건 찾기 놀이와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